

2019학년도 하계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9. 6. 22. ~ 7. 19.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대학 위치는 원래 저희가 이용했던 곳은 별레도 많고, 조금 열악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을 적응하는 것도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하여서 나쁘지않았습니다. 운이 좋게 좋은 호텔로 옮겨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확실히 더 좋은 시설과 환경에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아서 불편함을 느꼈지만 빠른 시일내에 조성이 되어서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공부할 수 있었고, 같이 간 학생들과 매우 친해지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수업내용은 신선했습니다. 그러나 토익 스피킹은 처음 접해보는 과목이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만큼 따라가도록 노력하게끔 만들어주셨고, 강사분들은 우리나라와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그만큼 개방적이셔서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수업준비 면에서도 열심히 준비해오신 모습이 인상깊었습니다.

필드트립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 이번 저희 기수는 날씨가 무척이나 좋아서 모든 필드트립을 경험 할 수 있었는데 가끔 비가와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정말 너무나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물은 우산이나 우비 같은 것을 챙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비용은 따로 들지 않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비가 언제 올지모르고 굉장히 습하고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간편한 미니 선풍기를 챙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모기가 많긴 하지만 한국에 있는 모기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 우산과 우비 및 슬리퍼는 필수입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현지 안전에 대해서는 도난 당할 우려를 항상 생각하고 생활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숙소	기숙사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 기숙사 시설과 분위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딱히 큰 불만이 없습니다. 규칙은 점호시간을 절대 늦지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의사항은 우리가 잠깐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식사	학교식당 () 외부식당 ()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학교식당과 외부식당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했기 때문에 둘 다 체크하겠습니다. 초반에는 필리핀음식이 너무 저와 맞지않아서 고생했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요리해주시는 분께서 맛있게 해주셔서 불만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식당은 워낙 맛집이 많기 때문에 여러 곳을 가봤던 것이 좋았습니다.
교통	시내교통 관련 택시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택시 비용 문제로 인해서 가끔 택시기사와 사소한 마찰이 있었지만 딱히 불편한 점은 없었지만 택시가 아닌 다른 교통편도 이용해보는 것도 재밌는 경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생활비용	50만원 환전	
예치금	20만원	
비행기 및 총 비용	75만원	
합계	145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모기약을 꼭 챙겨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슬리퍼만 챙기는 것 보다는 편한 운동화를 챙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며, 물갈이를 하는 학생이 많았기 때문에 약을 조금 챙겨가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먼저 제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한 달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곳에서 가장 감명깊었던 부분은 선생님들의 열정을 느꼈습니다. 1대1 수업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준비해오신 것들을 우연찮게 보게되었는데 정말 학생을 가르치는 열정이 많으시다는 것을 느꼈고 그만큼 따라가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으로써 타국에서 한 달간 지내는 것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경험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재밌게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향후계획은 이번 연수를 계기 삼아 좀 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여유를 가지는 마음가짐을 갖고 생활을 할 것 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느낀 한달은 필리핀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다르게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살아간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항상 빨리빨리 문화가 있고 항상 미래에 대하여 걱정과 스트레스로 살아가는 것과는 다르게 천천히 여유로이 사는 모습을 보며 조금은 여유로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마음 가짐을 가지고 저의 장래희망인 경찰 준비를 해나갈 것 입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귀국 전 스티커 사진	스타벅스에서 찍은 일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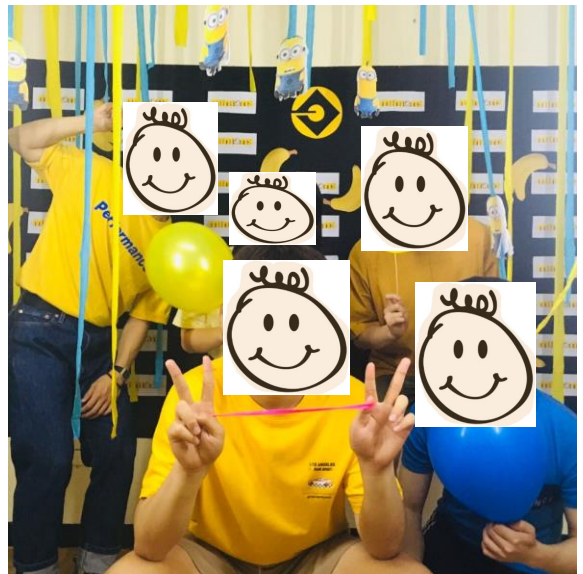
요트 활동



액티비티



숙소 풀장 사진



화요일 (미니언 Day)